

교회 목록

신령한 예배
친구일동 합성
만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복음화 협회 총현교회 서술복음사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산근

성경연구원 9월 첫주부터 개강 주는 저희를 진리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주간성경공부 교사 · 찬양대원 양성부, 일제히 개강
총현의 성도 및 타교회 성도들도 신청가능

다 거머쥔 열기가 서늘함으로 바뀌는 계절과 함께 다시금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다. 주간 성경공부, 직분자 양육반, 제53기 교사양성부, 그리고 제23기 찬양대원 양성부가 9월 첫주부터 일제히 개강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더불어 성도의 삶에 생명과 같은 요소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진리로 향한 성숙함을 위하여 중의 성도들은 금반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힘써 배우고 지키는 은총을 누릴시기 바란다. 한편 성경연구원의 모든 과정에는 총현의 성도들뿐 아니라 타교회 성도들도 신청하여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반 학기 각 공부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강사 등은 아래와 같다.

1) 주간성경공부

과 목	시 간	강 사
요한 복음 베드로후서	화, 오전10시 수, 오후12시40분	김영훈 이종대
사도행전 만수기 느헤미야	수, 오후12시40분 목, 오후12시40분	전영훈 여성기 정성진
크로세이아전 크로세이아2전 크로세이아3전 크로세이아4전	수, 오후12시40분 목, 오후12시40분 수, 오후12시40분 목, 오후12시40분	이종현 차병문 김민식 송홍환
일본어성경공부 누가복음 크로세이아3전	목, 오전10시 목, 오전11시30분	김영하 류병희

2) 직분자양육반

교육기간: 9월 27일 ~ 11월 15일(7주간)

과 목	강 사	시 간	장 소
구약성 교육 [문서, 구약성, 권법]	담임목사 외 교수목사	수요 1부 예배 후 (12:30 ~ 13:30)	교구별장소
구약성 교육 [분설 구약성]	담임목사 외 교수목사	수요 2부 예배 후	베다니홀
인수증서 교육	이슬수 목사	월요일 새벽예배 후	교육관 114

4) 교사양성부

- 교육기간: 9월 3일 ~ 12월 17일(16주간)
- 장 소: 교육관 301호
- 시 간: 매주일 오후 3:00 ~ 4:50

날짜/시간	1교시(15:00 ~ 15:50)	강의 제목	강 사	2교시(16:00 ~ 16:50)	강의 제목	강 사
9월 5일	9월 10일	개회예배	김병태	9월 10일	구약개론	이종현
9월 17일	9월 24일	신약개론	이종현	9월 24일	신약개론1	이슬수
10월 8일	10월 15일	신약개론2	이슬수	10월 15일	신약개론2	이슬수
10월 22일	10월 29일	신약개론3	이슬수	10월 29일	신약개론3	이슬수
11월 5일	11월 12일	신약개론4	이슬수	11월 12일	신약개론4	이슬수
11월 19일	11월 26일	신약개론5	이슬수	11월 26일	신약개론5	이슬수
12월 3일	12월 10일	신약개론6	이슬수	12월 10일	신약개론6	이슬수
12월 17일	12월 24일	신약개론7	이슬수	12월 24일	신약개론7	이슬수

선교위원회의 LMTC 12기 개강

선교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역 단기선교훈련과정 (LMTC)이 아래의 일정으로 개강하게 되었다.

- ①개강일시: 1학기 - 9월2일(토) - 12월9일(토)
2학기 - 2001년 3월3일(토) - 6월23일(토)
- ②강의시간: 매주 오후 5시
- ③강의장소: 베다니홀

남녀전도의 생명이 회개감사 실시

기간: 8월9일(1~4교구) / 8월13일(5~8교구)
8월20일(9~12교구) / 8월27일(13~17교구)
시간: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장소: 교육관 1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2000년 시계책, 시산표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예금통장, 영수증철

선교기도회

일시: 8월(22일(화))
제4 6시30분~9시30분
장소: 만나홀 및 대주리마을
(6시30분 - 만나홀, 7시30분 - 대주리마을)
대상: 선교위원회 위원, 생령위원, LMTC교육생, 외선부 교사, 선교관심자

교회내부

주변 대청소 실시

일 시: 8월30일(수)
수요1부 예배후
대 상: 전제교구 참석
준비물: 각자 고무장갑, 걸레
*당일 점심제공

목·강림절

생명에게 삼킨바 된 죽음

여성기 (목사, 10교구 지도)

성도의 죽음이란 천국이다. 누워 있는 그 얼굴에 신성한 미소가 있다. 한결같이 성스러운 잠을 자고 있는 듯 꼭 치면 곧 일어날 것 같다. 지상에 놓여 있는 무덤들의 모습이 마치 꿀벌집처럼 상상이 된다. 그 언젠가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날아 오르기 때문이다. 깊고 큰 계곡의 미궁의 어둠속으로 태양이 빛의 화살을 쏘면 놀라운 광경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듯, 어둠의 그늘로 가득찬 지상에서의 인생, 그 그들은 요람에서 시작하여 무덤에서 완전히 잠잠해 지지만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신 주님의 피와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미궁의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환한 생명으로의 초대, 빛의 축제로 초대 될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죽음을 사모하고 사색하는 것과 전혀 다른, 죽음 저편에 있는 것을 사모한다.

매월 사이에 10교구 믿음의 사람들 몇이 천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좁은 무대를 떠나 광대한 그 영광세계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날아갔다. 지상에서 가장 힘 있는 죽음도 성도에게 주시는 불멸의 생명을 방해할 수 없다. 바울은 "죽음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다. 우리 영혼은 넓은 자유의 세계를 동행한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집을 떠나 보다 넓은 세계, 보다 진정한 실재, 보다 많은 영광을 보다 거룩한 신성을 향해 뻗어 나간다. 이렇듯 주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게 삼킨바 되는 새로운 죽음이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 활히 웃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설립 47주년기념 금요집회

9월1일 7시 30분, 분당에서

총현교회에 올 9월 첫주일부터 4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금요집회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①주제: '청문'

②목적: 성경에서 나타난 청문의 의미를 구원사적인 각도에서 조망하게 된다.

③내용: 청문에 대한 서론, 성경에서의 청문 이야기, 청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④진행: 전례에서 진행은 담임 목사가 맡게 되고,

8명의 장로에 의해서 선포되어진다.

이번에 드려지게 될 특별집회를 위해서 8명의 장로들이 두 달 가까이 맡은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였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중현의 모든 장로들께서 더욱 복음의 진리에 붙잡히도록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2000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27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민식 목사)	교육관 407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전영훈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적벽 찬양예배, 분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Your Pride

(Obadiah 1:3)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you who live in the clefts of the rocks and make your home on the heights, you who say to yourself, 'Who can bring me down to the ground?'"

A lot of people don't know that pride is deceptive. Do you know that your pride deceives you? It's true! Today, sitting in this sanctuary, are many proud persons. For those of you who think you have no pride, I think you are the most prideful of all people. Why? Because those who think they are humble are truly arrogant! Sometimes you believe your conscience doesn't get deceived, but there are lots of times when your conscious deceives you. Look at your Bible, "The arroganc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You who live in the clefts of the rock, In the loftiness of your dwelling place, Who say in your heart, 'Who will bring me down to earth?'" (v. 3). The Edomites, descendants of Esau, Jacob's twin, were prideful people. God addressed these words concerning them because they were deceived. Their arrogance deceived them in many different ways. By reflecting on the doom, denunciation, and destruction they encountered by God because of their prideful hearts, perhaps you can gain valuable insight into your pride.

The Edomites took great pride in their high living position. Because others respected the towering, mountainous walls that surrounded their homes, they thought themselves to be held in honor. But they thought wrong! Obadiah tells us that they were "greatly despised" (v. 2). People hated them because they thought much of themselves and little of others. They incorrectly measured themselves above others. The Bible tells us, "by your standards of measure, it will be measured to you" (Mt. 7:2). Do you ignore or think less of other people? It you do, you are deceiving yourself. Pride judges others wrongly and deceives your mind.

Don't insult other people by looking down at them.

The Edomites took great pride in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ir dwelling place. It's easy to become comfortable with a nice house, kind spouse, good health, pleasant family, fulfilling job, and deceive

was from the chief settlement of Edom, called Teman. The Lord God said of the Edomites, "There is no understanding in him" (v. 7). Are you proud of your wisdom? If you don't know God, you know nothing! You may have college degrees, lots of friends, and money,

think you are, you are blind. You must remember that Haughty people are deceived people. If you spiritually think of righteousness, you will be so satisfied. If you think of righteousness in terms of worldly standards, you will be self-righteous. As a Christian, you are not self-righteous, not can you be self-sufficient. Self must die, so that Christ may reign within the human heart. Without the indwelling of the Spirit of God, pride will destroy you.

Your pride will lead you into evil ways. The pride of the Edomites led them to violence, unbrotherliness, aloofness, and aggressiveness (see vv. 10, 14). They rejoiced over the misfortunes that befell Jerusalem's enemy. Haughty people have hearts like stone. There is no love, and no sacrifice within them. They defile the holy (v. 16). Actually, prideful people invite the enemy into their hearts. They become as one with the devil. Their minds become cold, their eyes become blind, and their ears can no longer take in the things of God. They lose everything. Their pride results in their downfall. They can't avoid God's judgment, "Because just as you drank on My holy mountain, All the nations will drink continually. They will drink and swallow and become as if they had never existed. But on Mount Zion there will be those who escape, And it will be holy. And the house of Jacob will possess their possessions" (vv. 16 & 17).

Your pride holds God in contempt. The Edomites' pride led to their total destruction. Seek your Savior, Jesus Christ, and not pride. Hate pride, deny self, and respect Jesus. He is the truth, way and life. The pride of Esau came down to ruins: the pride of Jacob rose above to the Lord God. You have to shrink yourself, and expand Jesus inside to eliminate your pride. When your pride goes down, your cross goes up! 

Your pride holds God in contempt.

The Edomites' pride led to their total destruction. Seek your Savior,

Jesus Christ, and not pride.

Hate pride, deny self, and respect Jesus.

He is the truth, way and life.

The pride of Esau came down to ruins:

the pride of Jacob rose above

to the Lord God. You have to shrink yourself,

and expand Jesus inside

to eliminate your pride. When your pride

goes down, your cross goes up!

yourself. The Edomites thought, "Who will bring me down to earth?" (v. 3). The Lord God declared, "From there I will bring you down" (v. 4)! The Edomites thoughts all was well, when in truth all was not well, doom was to befall them. You may find yourself thinking that because all is well on the outside, all is well. My dear friends, no one is promised tomorrow. Life can change at a moment's notice. Security isn't found in your earthly family/friends, home, or employment. Real security comes from your faith in the Lord God.

The Edomites took great pride in their wisdom. They had understanding and wise men (see v. 8). One of Job's friends, Eliphaz,

and you can deceive yourself into thinking that these elements are reliable, but if you don't have God—you don't have zilch! If you trust in anything or anyone other than the Lord God, you will be greatly disappointed. The Edomites relied on their alliances, and their alliances turned against them, "All the men allied with you will send you forth to the border, And the men at peace with you will deceive you and overpower you. They who eat your bread will set an ambush for you" (v. 7).

Your pride darkens your eyes. It is the wrong foundation to build anything on. Each prideful episode you start opens the doors for deceit to enter. When your pride interferes, you are not what you



김성란 목사

자 존 심

(옵1:3)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존심의 포로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오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있는 자존심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들 가운데는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나는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자신의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고 믿겠지만, 실은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속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교만으로 가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교만은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였습니다. 결국 온 땅을 차지하며 공공연한 비난과 파괴를 일삼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 때문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자존심을 통찰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으로 인한 자존심

에돔 족속은 그들의 수준 높은 삶의 지위로 인해 커다란 교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이 솜은 탐과 견고한 담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집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명예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만합니다. 그들이 크게 멸시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절).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7:2).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며, 그 자신을 속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무례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한 자존심

에돔 족속은 그들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안전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커다란 자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과 친절한 배우자, 육체적인 건강함과 즐거운 가정,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는 안락함을 느끼게 하며, 그것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네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리리라!”(4절). 에돔 족속의 상황은 실제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했고, 온영은 그들을 행행할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의외로 보이는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은 한순간의 경교에 의해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안전은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족이나 친구, 집이나 고용된 직장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참된 안전은 주 하나님만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지혜로 인한 자존심

에돔 족속은 그들의 지혜에 대하여 커다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각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8절). 읍의 친구들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는 에돔의 부족장이었

는데, 데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7절). 여러분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친구가 있으며, 재정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그들의 동맹국가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의 동맹 국가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너를 찾아 번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풀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7절).

영혼을 눈멀게 하는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심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위에 어떤 것을 세우든지 그것은 잘못된 기초입니다. 자존심으로 가득한 경험담들은 여러분을 노리는 속임수에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방패할 때, 그는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올바른 척다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의를 생각한다면, 매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쁨의 관점으로부터 의를 생각한다면 자기 외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자기 외의 자기 만족에 빠지는 안 됩니다. 자이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자존심은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형제사랑을 가로막는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심은 악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자존심은 그들을 사납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냉담하고 공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10,14절 참고). 그들은 에두스살렘이 적에게 점령당하는 불행 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둘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짓밟습니다(16절). 실제로, 자존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원수를 모셔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편을 드는 자와 같이 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은 냉담하게 되고, 그 눈은 멀게 되며, 그들의 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그들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같이 만곡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없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아람 족속은 자기 기업울 누릴 것이며”(16,17절).

심자가는 인간을 자존심으로부

터 해방시키고

여러분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계속합니다. 에돔의 자존심은 그들을 진적인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자존심을 미워하십시오. 자기를 부린다고, 예수를 존경하십시오. 그는 진리로 길과 생명되십니다.에서의 자존심은 멸망으로 주저앉게 하였고 야곱의 자존심은 여호와 하나님 향하여 일어서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자주 작아지게 해야 할 것이며, 속에 있는 자존심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를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낮아질 때, 여러분의 심자가는 높아질 것입니다. ■

지역을 복음화시킬 정예부대가 될 것을



‘생명을 누십니다, 생명을 구합니다(요10:10)’의 말씀을 표어로 삼고, 3교구 농어촌 전도대는 성령님의 동행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7월18일 무더운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출발하여 연천군 신당리의 70여세대에 자리잡은 자연의 마을로 향했다. 주일 성인 교인 출석수가 10여명 내외라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도 주일학교 어린이가 25명, 중·고등부 학생이 15명 정도되니 장차 저들이 가정용, 이웃을, 지역을 복음화시킬 정예부대가 될 것을 생각을 하니, 금금교회에 앞날이 어둡지 않음에 감사한다. 그러나 저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방 침술과 건강 강좌를 하신 장로님, 마음으로 선교하신 권사님, 전도팀은 딱지여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전도에 힘썼다. 어린 영혼들에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성경학교팀, 모두를 위해 맛난 육의 양식을 준비해주신 봉사팀 등 모두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갔다. 출신지는 금금교회에 등록시키고 우리 모두가 금금교회의 기도의 후원자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며 2박3일의 일정을 마쳤다.

(이명희 집사·3교구)



신앙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게 하심

7월 24부터 2박3일로 충북 충주 교현 중앙 교회에서의 전도 활동 중 부흥회때 하나님께서 이중철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은혜로우신 말씀과 교사 기도회 때 성령 충만했던 일 등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11교구 전도 활동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채워 주셨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저와 우리 교우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지식의, 지혜의,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 주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 교사 기도회 때 동글게 서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른 후 한 사람씩 원안에 들어가 앉아 기도 제목을 말하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여 주셨다.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좋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아—면 하였다. 오만만에 늘도록 기도하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떠나는 날 충주호에 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나에게 아름다운 신선과 마음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 농어촌 전도를 은혜중에 마치게 되어서 기쁩니다.

(김영철 집사—11교구)

금성교회에서 13교구에 온 편지

“전도하시는 모습 정말 귀엽어요”



할래루아!

충북 제천에 있는 저희 금성교회를 찾아 주신 송천교회 제13교구 농어촌 전도팀에게 먼저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두더운 삼복더위에 감자탕과 주황, 화장실, 샤워 시설 등 모든 시설이 비비한 산골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름성경학교 교사님들은 헌신적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제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전도팀 권사님과 집사님께서는 두더운 삼복더위에 땀을 흘리시며 250여 가구, 가가호호를 일일이 방문하셔서 마음회한, 인터넷 등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전도하시는 모습 또한 정말 귀엽습니다. 이·미용당은 새벽부터 온종일 서서, 많은 분들에게 아름답게 봉사하신 전도하셨고, 주방 봉사팀은 시설이 좋지 않은 장소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 주시며, 특별히 마을 주민들에게 푸짐한 초정찬치를 성대하게 열어 주시는 등, 각자의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지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을 교리로 찾아오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 사업에 충성 봉사로 헌신하신 송천교회 13교구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생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0년 7월28일
금성교회 정현길 목사 올림

고향방민 양동으로 다녀온 농어촌 전도

8월8일(화)부터 이틀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에 위치한 양동성심교회를 다녀왔다.

양동성심교회는 1978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출석교인 성인 32명에 불과한 미자립 농촌교회이다. 마침 양동이 조부님들이 사셨던, 그래서 중학교 시절까지도 방학때가 되면 으레 내려가던 고향방민이었다.

첫날 도착해 전도팀들은 6개조로 나뉘어, 현지 교인과 함께 4명씩 짝지어 전도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된 제1조는 목말마을 30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준비해간 시장바구니와 사랑, 바카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열게 했고 열려진 마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날 저녁 부흥집회에 꼭 참석하도록 권면했다. 오전 오후 두 차례 전도를 하면서 권료한 노인들만 남아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촌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간혹 보이는 젊은이들은 왜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해든지, 아예 돌아서 버리지 않으면 자괴감에 더 던지고 푸꾸르듯 대화를 중단하는 게 다반사였다. 그래도 부흥집회에 맞추어 송창자를 4번 열애하며 12명을 모셔 오 수 있었다.

부흥집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뿐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신명하고 힘있게 전도되었다. 67명의 참석자 모두가 제단에서 나의 구주되신 교회를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1박2일간 함께 고생하며 협력해 주신 4교구 전도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인용 집사·4교구)



일꾼 선택이 있어 완전하신 주님

10교구 식구들이 마음에 많이 우려했던 연천 새마을 교회는 도착했다. 이 교회는 10여년 전에 어느 목회자의 큰 실수(금전관련)가 있어서 현재 그 문제로 평판이 꽤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 내외와 몇몇 성도님들이 힘껏 동역해 왔다. 일꾼이 적은 곳이라 성경학교와 축조전도로 나누어 사역을 했다. 70여 가구가 흩어져 있는 동네, ‘주님께서는 일꾼 선택이 있어 완전하시구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농어촌 전도대에 참여하였다. 개성과 성격 그리고 지적 정도, 모두가 귀하고 준비된 분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분들이 한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을 영접한지 32년만에 15교구가 지원한 충북 괴산 동정교회 여름성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7월24일 오후2시부터 동정교회에서 인근4개 교회(동정, 은곡, 대방, 우현교회)에 소속된 어린이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반편성을 하고 잘 훈련된 교사들이 각각 담당교사로 임명되었다. ‘돈든지 사가는 교회’라는 슬로건 하에 성경공부와 출몰으로 열심을 다하는 교사들의 모습에 성경님의 함께 함을 느꼈 수 있었다. 이틀째날의 함께 사마와 이·미용 팀과 함께 오셔서 치료받고 머리카락 피미하는 가운데 구원받으라고 모두들 전도에 열

심이였다. 마지막날 전도초청집회에서 김진식 목사님께서 ‘내가 믿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으며 부활한 제가 한영혼이라도 전도해 불러고 다른 남자 집사님들 지원을 받으며 한가정을 10여차례나 심방을 하러서 전도를 하고 저녁 집회에 꼭 참석해줄 것을 부탁하고 돌아왔다. 저녁집회까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지만 끝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성경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힘의 한계를 절감했다. 한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농어촌 전도행 꼭 다시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며 돌아왔다. (조성철 집사·15교구)

하나님의 일

고 유주 (청년부, 74등)



대학부 때 많은 활동을 하던 나는 대학졸업을 하며 새로운 VISION을 갖게 하시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때 활동했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활동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부에 올라와 웬지 대학부 때처럼 결심과 결단이 서질 않았습다.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강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아무 것도 안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매일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오만복을 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쉽게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자라나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회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대학부 시절 조장으로서 섬기게 하시고 HMC 사역과 낙도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님 당시의 나와 믿음으로 동참해 예수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때에 맞게 알려주시는 지체로써 보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4:16) 하나님께서 나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량을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천은주 (청년부, 75등)

'1999년 7월27일 축호전도-두려움! 낙도사역에 대해 가장 먼저 느낀 두려움은 바로 축호전도였다. 오늘도 OT본문은 디모데후서1장, 고린도전서2장이었다. 힘을 얻고 나는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주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기에 정말 난 너무나 부족했다. 너무 속이 상했다. 그러나 난 주님이 바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고 태풍이 지나가게 해 주셔서 감사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와서 하나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모든게 감사했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적을 수 없다. 그러나 교회앞 바위에 서서 보았던 소나무와 바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은 아마 계속해서 남을 것이.'

작년 낙도 사역에 가서 적이었던 일기를 다시 꺼내 읽어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내 인생의 반복적인 삶속에서 습관적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온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교회에서의 나의 일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일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한 때였다. 그래서 난 작년의 그 은혜를 다시 받고 싶어 강원도 영월로 농촌 선교를 갔다. 그리고 회복함을 얻고 왔다. 그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다. 깨끗하게 지어진 길들도, 잘 단련된 길들도, 아이들의 순수한 눈도, 참! 이름모를 꽃이 많이도 피어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고 기뻐했다. 지역이 꽤 넓어서 우리는 산도 넘고 냇가도 건너면서 걷고 또 걸어서 집집마다 예수님을 전했다. 혹시나 배움을까봐 지도까지 보면서 말았다. 그리고 참 많이도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했다. 과연 내가 잠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까? 우리의 이런 일이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면 어떡하지? 난 성지반을 준비를 한 어린이와 같았다. 그러나 난 이런 농촌선교를 다녀와서 나의 소심함으로 인한 이런 의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전능하신 분인데 나의 신세에 그 능력을 한계짓고 그 결과를 예상해 놓았다. 난 단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했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했고 찬양했음을 뿐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난 깨달았다. 그순간 난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사역의 성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결코 가득 찼기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그 결과까지 말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의 울음을 느꼈다. 그리고 쓰러진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만 두는 것을 하 나님께만 영광돌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감사했다. 난 이글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결신자가 몇 명이 생겼는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지를 적어야 하는 부담감으로 가득찼다. 그러나 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깨달음과 기도 돌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변함없이 용서과 회개를 위해 기도하기를.



지금 이 작은 자에게 할 것

이원희 (청년부, 75등)

제가 학생 때부터 훈련받았던 CCC한 단체의 의료선교부 agape란 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장 안으로 무료진료를 나갑니다. 학생과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양방, 한방, 가정방문, 전도사역을 하고 있지요. 저는 이 곳에서 가정방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어느 노인 할머님댁이었습니다. 할머님은 의해보조 대상자로 약은 부족함 없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오형리 약에 배 붙여서 흔히 말하는 약물 오남용 수준에,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자 할머님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해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할머님을 뵈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사는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이 충분해도 글씨가 보이지 않으셔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셨고, 약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교제, 정서적인 사랑, 관심, 영양섭취, 운동 등과 같은 것들은 전혀 없으셨지요. 할머님은 치아가 상해서 밥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번에는 죽을 싸오기로 했습니다. 할머님은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읽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라디오에 말씀 테이프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약을 분류해 드리고, 약이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관심을 가졌을 때 실제적인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웃을 예전에는 아프리카 오지나 외딴 섬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우리 고개를 돌리면 바로 보이는 우리 옆에 계십니다.

만평

글 · 그림 / 김병현

1. 하나님! 출현의 성도 000을 제 손에 한 번 붙여 보십시오!



2. 그가 당신을 섬기게 하는 바로 당신이 주신 재물로



3. 그에게 삼금이 없다면 필시 당신이 떠날 것입니다.



4.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냥 놔둬라.



내 입의 찬송

찬송 중에 함께 하신 나의 주님

김 정 표 (집사, 12교구)



찬송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려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 부분임을 성경 여기 저기서 강조하고 있다. 시편 113편 1-3에서는 시간, 장소, 공간을 초월, 영원토록 찬송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편 147:1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우는 성경 읽기, 기도는 습관적으로 계속했지만 찬송은 노래실력이 없다는 핑계로 늘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히브리서 13:15의 '이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는 말씀에 이르렀다. 예사로 넘길 수가 없게 되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가장 즐겨 받으신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누누히 말하고 있다. 난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간파해 왔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기도를 드렸다. '비록 곡조는 정확하지 못하지만, 음성은 나쁘지만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주님은 넬슨(Nelson)시 남성 합창단원이고 프랑크 사범 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화란인 자든(Belt Tjaden)을 친구로 만나게 해주셔서 매주 한번씩 만나 함께 두엇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곤 했다. 그는 으레히 리코더(recorder)도 음을 잡곤했다. '감브리산악'에 는 그가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였다. 나도 그곡을 같이 부르던 중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늘 흥얼거려곤 한다. 비록 서둘러진 키보드를 치면서 넬슨에서의 가나건 겨울밤을 은혜의 깊은 밤으로 엮어 주시는 시간들도 맛보았다. 이제 찬송이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내 주머니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찬송곡들과 성경구절들이 들어 있어 마치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지닌 것 이상의 호듯함을 느끼곤 한다. 소한 세월 굳게 봉해 녹슬었던 무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니, 내 영혼이 사슴 발같이 높은 곳을 뛰게 하시고 내 영혼을 늘 축복하리 적서주심을 체험케 하신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읽고 기도한 후 주신 찬송가사를 깊게 음미하면서 은혜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입술을 열어 찬송을 드리면 그 아름다운 영이 가사들이 입력되어 나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정말 찬송은 주님이 즐겨 받으시는 산 제사요, 우리의 곡조있는 기도요, 곧 신앙고백이다.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증보기도가
급히 요청됩니다

5교구 김재수집사님과 고길중성도님은 양모로 강남시립병원 581호에 입원중입니다.

6교구 이순애집사님은 허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입원실이 없어 대기중에 계십니다.

8교구 김지선성도님은 급성류마티스로 생각되나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도님의 사랑의 장기 부분 기증을
급히 필요로 합니다."**

김한용 성도(영여교육부, 시은찬양대)께서 간경화로 부분 장기이식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혈액형이 O형이면 건강장 20~30대의 젊은 청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연락은 오경은 성도님(018-229-1668)로 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준비교실

- ♥ 일 시 : 2000년 8월 20일(주)미부터 매주일 오전 11시~12시 30분
- ♥ 강의기간 : 8주
- ♥ 강의장소 : 신촌가정상담(교육관 201호)
- ♥ 참가대상 : 결혼을 준비하는 커피
- ♥ 그룹형태 : 그룹 전체가 모여 주제강의를 들으시나, 필요시 커피 혹은 개인상담이 주어진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다른 커피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 ♥ 등록안내 : 562-8200(교한 429)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성은야! <주과중현>에 남기는 출발 편지를 읽었다.

새벽 기도때를 따라 우간다에 도착했다는 전화도 받았다. '그구까지 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으름과 교만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본다는' 선한 의지를 모색하면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계으름과 교만을 열린 벗어버리고, 그곳 아이들의 긴 잠을 깨울 수 있게 바란다. 종종 예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무지와 계으름, 교만이 지금도 우리 시대 예수님을 못 박는다. 성경을 과거의 유희로 사건으로 단지 간직하고만 있으려는 무지, 하나님 이 나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의 창조를 낳보다 먼저 이루셨으니, 나는 이제 애연에서 편히 놀리라는 계으름, 하나님 이 기도와 찬송에 뛰어난 나를 인류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슬로몬처럼 나를 풍요케 하신다는 교만. 이러한 것들의 과거 결과를 보고 오기 바란다. 앞으로는 네 주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가슴을 창으로 찌르는 반 예수당이 아님을 행동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부 명명 제자로 '타 임마신을 미래로 돌려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깊은 문명의 향유와 몰약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

아빠가 2000년 8월 8일에 쓰다.
우간다 단기 파송 이성은 학생 아버지 이름

나혼자 전권할 없었이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쁨

이 경 재(집사, 3교구)



8월 3일 멕시코에 있는 친구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이 친구는 지난 IMF사각후 얼마 안지나 되긴하는 나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한 친구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의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은 밤이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조금전 자기의 남동생을 불렀는데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버님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했대며 죽고 싶다는 말을 계속했다. 하던 사업이 부도나므로 인하여 더 이상 건질 수 없게 되자 최후의 방법이 그 길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짐을 감지한 나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기회는 이때다 싶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평상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아는 친구는 나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육도발 같은 마음판에 폭폭 심어지기 시작함을 느꼈다. 드디어 영침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후, 10시 30분 내가 배고프니 밤먹으러가자는 나의 말에 내가

음식을
주문하
자 밥을
먹었다

그 친구도 음식을 주문하는데 나보다 배를 더 먹는다. 3일을 굶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중 아버님이 먼저 별세하셨는데 우리 교회 세가족부 지도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이 조문을 해주심에 대하여 그 친구는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불교신자이던 어머니도 교회 식구들의 조문에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아버님의 별세후 3년동안 혼자서 교회다니셨다. 그후 그 친구에게 생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보내주시고 가족까지 그곳으로 보내주시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할레루!

중등2부 수련회를 준비하며

남 호 중 (중등2부 교사)



제38회 중학교 중등2부 수련회

예수 따라가자! 복음 순종하시라!

다면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황폐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십시오. 수련회 기간동안 만약 제가 수련회 준비와 기획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의미있는 과거의 추억을 만들게 해주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 조금 더 다가서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들과 더 많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우리 친구들과 이제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대화와 있구나' 하는 귀한 선물을 덤으로 받았습니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 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한행이라도 더 참아서시켜야겠다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수련회 홍보를 통해 나타나고 수련회 각 행사장마다 더 잘하기 위해 일어나는 갈등에서도 끝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이 수련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수련회를 의면한 일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볼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무표정했던 얼굴들에 생기가 생겨 밝아지고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을 통해 변화 성숙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니다. 좋은 여건 환경에서 화만 내고 짜증만 내던 내 모습을 반성하는 친구, 나는 그들보다 더 '중증 장애인'이라고 고백하는 친구, 장애인 그들의 친절과 순수한 웃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친구, 이같은 양갈은 무리의 고백속에 연소같은 무리가 있어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일이 담지 못할 소리는 친구, 선생님들을 육하는 친구, 불평에 찬 친구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그 확신이 저로 하여금 이 수련회를 끝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박 동 준 (중등2부)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들과의 만남

박 동 준 (중등2부)

이번 여름수련회는 그 어느 때와 달랐는데 아주 뜻깊은 수련회였다. 매년 수련회마다 이곳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알지도 못하는 장애인들과 1박2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 내에게는 너무나 말짱치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난 기도로서 수련회의 참실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장애인시설로 보내기로 계획하신 것은 내가 가야할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친구들과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처음 그곳에 갔을때 그곳 친구들은 너무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나는 조금은 어색한 모습이었다.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그곳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세상에 필요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순수한 그들의 미소... 난 아무런 기쁜 일이 없이도 그들의 미소는 흉내낼 수 없을 것 같다. 처음 1박2일이라는

시간이 길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활해보니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난 항상 나의 생활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나의 생활에 감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 시설생활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감사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단지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때문에 세상에서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된 그들... 그들이 세상에 물든 우리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고 장애인이라는 정상이든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참조 뽐는 법도... 나는 그곳을 나오면서 기도했다. 세상에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에게 많은 갈등과 결단을 요구한 여름 수련회

송 지 훈 (중등3부)



친구들과의 약속, 학원수업을 기약한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수련회에 가기로 결정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부흥회, 레크리에이션, 찬양제, 특강, 리얼토크가 이어졌다.

찬양제에서는 친구들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목사님 가족의 특성은 정말 좋았다. 리얼토크에서는 선생님들과 진솔하게 토의를 했으며 부흥회에서의 목사님의 설교는 지난날 예배드렸던 나의 태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십자가를 알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했다. 나는 끈으로 묶여 있는 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예배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진행되어 갔고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느꼈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서로의 말을 엿거 쫓 때는 왹지 마음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은 하나님보다 친구들이 더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샘

민수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민수기는 70인칭(헵라이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의 제목대로 '넘버'(Number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민 1:26). 민수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제목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미드바르'(bemidbar)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방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목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광야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실 적에는 우선 모든 사건들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무지무지 많이 기록되어 있기거든요. 광야에서 수백만의 백성들이 함께 여행하더니 얼마나 귀찮고 불편했었어? 만일 우리도 수돗물 없고, 잠자리 불편하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장소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을 할 수 있었지. 아무튼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민수기를 읽으셔서서는 안되요. 아주 불편한 곳에 갇힌 경험을 떠올리면서 민수기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야 그들이 왜 불평했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할 것은 '방향'이라는 주제로 읽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의 불편함은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불평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넘는 여정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믿음과 확신도 없이 광야를 여행하러나 정신적인 방황과 육체적인 방황, 전적인 방황이 격나타게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주님에 대한 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방황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이렇게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기나안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백성들이 생겨나도 하나님의 뜻을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불평과 불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환경과 불신앙으로 뒤덮인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